

회의	의원	정당	지역구	주요 발언	발언유형			
					후속 사업	성과 왜곡	수공 지원	기타
2015년도국감-국토교통(2015년9월 21일)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p>"일단 제가 볼 때는 이 4대강 사업을 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물그릇은 키워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심각한 가뭄에도 우리가 풍부한 수량을 유지 하는 4대강, 일부에서는 물이 많으면 뭐 하나, 가뭄에 도움이 안 된다,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 4대강 사업이 적어도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는 대성공을 거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예, 필요한 용량을 확보한 내용이 있습니다.</p> <p>○강석호 위원 그런데 물론 4대강 본류의 풍부한 물이 가뭄지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공급 되지 못한 것이 지금 문제이다,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나오지요?</p> <p>○강석호 위원 그 계획을 잘 활용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p> <p>○강석호 위원제가 시간이 없어서 해외 관련 사례는, 캘리포니아주라든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p> <p>○강석호 위원 그다음에 키르기스스탄 같은 데도 빙하가 녹은 물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넘기는 것 또 물을 어떤 석유가스와 서로 베팅하는 그런 문제 등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p> <p>○강석호 위원 그런 부분을 잠시 저걸 하시고요.</p> <p>사실은 옛날에 제가 18 대 때 농해수 위원으로 있을 때 원래 4대강을 영산강을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야당 에서는 영산강은 4대 강에 포함시키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때 전남도지사인 박준영 그 당시 도지사께서 영산강 물은 6급수, 쌀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탁수의 물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제외하느냐..... 그 당시 농해 수위원장인 이낙연 현재 전남지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서로 쌍방 같은 당끼리 토론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4대강을 해서 자연환경, 여러 가지 등등 있지만 또 많은 장점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p>	○			
2014년도국감-환경노동(2014년10월 23일)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p>"4대강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사업완료가 된 지도 오랜 시간 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줄기차게 야권에서 이 4대강 사업은 적법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 있는 4대강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저는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게 6년 내내 국감만 열리면 4대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사법부에서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판단을 내렸습니다. 4대강에 관해서 사업 시행 취소, 계획취소 소송을 야권을 비롯한 시민 단체가 연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모두 항소심까지 즉 고등법원 까지 정부가승소를 했고 시민단체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력 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다 기각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p> <p>4대강 사업, 치산치수는 옛날부터 통치자의 기본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있어서.</p> <p>중국 같은 경우에도 치산치수를 못 한 황제들은 역성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다 붕괴가 됐습니다. 하지만 소위 역사에 남을만한 이름을 가진 황제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전부 치산치수에 매 진을 했습니다.</p> <p>4대강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홍수예방, 용수확보, 그다음에 주변지역 정리, 정비 등을 목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4대강유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p> <p>○환경부 장관 윤성규 그거는 뭐지 천, 지류 이런 데서는 있었지만 본류 구간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권성동 위원 본류 구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녹조현상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보 때문에 그렇다, 유속이 느려져서 그렇다' 하지만 장관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온, 일조량, 영양물질 농도에 녹조 현상은 비례하고 수심과 광소멸계수에 는 반비례하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지요?</p> <p>○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수심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p> <p>○권성동 위원수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p> <p>○환경부장관 윤성규 체류시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p> <p>○권성동 위원체류시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p> <p>○환경부장관 윤성규 예.</p>	○			

				<p>○권성동 위원 그런데 또 장관 과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것이고 또 이 4 대강 사업 하면서 수질개선을 하 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환경부에서? 총인처리시설 확충했지요?</p> <p>○권성동 위원 그리고 비점오염 원 관리 대책도 만들었지요, 환경부?</p> <p>○권성동 위원 그래서 수질개선 대책도 했습니다.</p> <p>그런데 이 유속이 저하되고 체류시간이 증가 한 것이 수질 악화의 원인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라고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 한번 보셨습니까?</p> <p>○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판결문은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p> <p>○권성동 위원 그 판결문 보면 분명히 유속 저 하가, 체류시간 증가가 수질 악화의 원인 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단 정하기 어렵 다, 즉 다 시 말해서'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p> <p>어떻습니까?4대강 사업으로 인 해서 인 농도는 지금 많이 감소가 됐지 요, 인 농도?</p> <p>○환경부장관 윤성규 인 농도요?</p> <p>○권성동 위원 예.</p> <p>○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질량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p> <p>○권성동 위원 한 20~50% 정 도 이렇게 감소가 되었고 또 수심이 깊어지고 물그릇이 커지다 보니 까 수온상승을 막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p> <p>○환경부장관 윤성규 수온상승은 제 가 볼 때는 수면적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낮 에 들어오는 양만큼 또 밤 에는 식기 때문에 그 것이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는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p> <p>○권성동 위원 그렇지 않다는 과학자들의 견해 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유속이 감소해 가지고, 과거에는 4대강 이전에는 하류에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계 상류로 갔다 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p> <p>○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p> <p>○권성동 위원 그런 측면 도 있지요?</p> <p>○환경부장관 윤성규 예.</p> <p>○권성동 위원 그리고 큰빛이끼벌레가 무슨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하고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다라 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미국에서 온 저명한 과학자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거 들어 보셨습니까?</p> <p>○권성동 위원 큰빛이끼벌레가 인체에 유해합니까? 수질악화의 원인이 됩니까?</p> <p>○환경부장관 윤성규 수질악화라기 보다는 수질 을 정화하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게.</p> <p>○권성동 위원 그런 마치 큰빛이끼벌레가 수질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야권 에서는 여론을 호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 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십시오.</p>			
2013년도국감-법 제사법(2013년11월1일)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p>"우리가 대운하에서 4대강 살리기, 하천정비사업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겠습니까, 실무들 사이, 청와대와 국토부의 관계자..... 또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모르는 사항을 새로 발견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러다보면 보고사항 이 자꾸만 내용이 바뀌어요.</p> <p>그런데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대운하 안한다. 이것은 하천정비계획이다.4대강 정비 사업이다'라고 얘기했고, 담당 부처 장관도 '대운하 아니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운하로 이용되기 위 해서는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시설변경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이 한 얘기는 감사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일개 실무자가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 자료 , 그 자료가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는지 장관한테 보고가 됐는지조차도 불분 명하고 그것이 최종적인 자료인지도 모르는 자료를 갖고 이것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다고 감사결과 를 발표했어요. . 이것 완전히 엉터리 감사입니다.</p> <p>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p>			○(감사 결과 문제 제기)
2013년도국감-법 제사법(2013년10월15일)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p>"이번 4대강감사 결과에 대해서 총장을 비롯한 감사팀을 제외한 나머지 감사원 직원들한테 물으면 아마 과반수가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부적절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원을 정치의 한 소용돌이, 한 복판에 몰아세웠다. 감사원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라고 이야기할겁니다.</p> <p>왜 한쪽 측면만 보고 다른 쪽 측면은 보지 못합니까? 판단을 할 때는 그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종합 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 유리한 자료만 짜깁기해서, 편집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 것 누가 승복을 하겠어요?</p> <p>그리고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고 국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치행위예요 . 통치행위에 대해 서 잘잘못을 감사원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p>			○(감사 결과 문제 제기)

제19대국회 제334회 제5차 국회본회의(2015년 06월 23일)	김기선	새누리당	강원 원주시갑	<p>"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상시화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124년 만에 대 가뭄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 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p> <p>첫째, 4 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많은 물을 옆에 두고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현장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대형 물차와 펌프 등을 이용해서 물을 퍼 나르는 땀질식 처방에 급급하고 있습니다.</p> <p>4 대 강의를 물을 농업용 저수지로 흘려보내는 관수로로 놓거나 지천별로 소규모 다목적 저류지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p>	○			
제19대국회 제33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 10월 30일)	김동완			<p>"충남 서북부지역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백제보의 용수를 도수로로 보령댐으로 보내지 않을 경우 현저 수율로 볼 때 앞으로 언제까지 급수가 가능합니까? 제가 이를 전에 갔을 때 1월까지 라고 합니다.</p> <p>만약 백제보에서 1일 10만 5000t 씩 송수를 한다고 해도 겨울에 가뭄이 지속된다. 먼 4월이면 용수가 고갈이 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면 5월부터 영농철인데 이게 가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은 안희정 지사께서도 가뭄을 극복하는 데는 정쟁을 삼지 말아야 한 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 한 지원을 건의했었습니다.</p> <p>재난을 극복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4대강에 대한 논쟁으로 민생이 표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여야가 이것에 대해서는 협력했으면 합니다.</p>	○			
제19대국회 제3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 10월 29일)	김동완			<p>"앞으로 도수로, 4대강 사업과 연계했던 도수로 사업을 시급히 금강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고, 또 그 지역특수 하게 유수율 제고 문제라든가 준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p> <p>부총리님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서북부지역은 차령산맥으로부터 바다까지 의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이 큰 하천이 거의 없어서 이게 가뭄 상습 지역입니다. 이걸 감안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삽교를 개발해 주심으로써 옥토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령댐과 예당저수지가 그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부총리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p>	○			
2013년도국감-국토교통(2013년10월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영도구	<p>"○김무성 의원 2006년에는 태풍 '에위니아' 등으로 인명 피해가 63명, 재산 피해가 1조 9 000억 원 이 발생 했습니다.그때도 정부는 국가하천정비 및 하천재해예방 사업 투자를 골자로 한 신국가방재 시스템을 발표했는데 2007년부터 2016 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87조38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까?</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김완규 예, 알고 있습니다.</p> <p>○김무성 의원 이런 수방사업들의 기본 방향은 그동안의 단편적인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 대신에 집중적인 예방 투자를 통해서 수해를 방지 한다는 차원에서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대87조 4000억 원짜리의 막대한 예산계획만 세워놓고 제대로 시행은 못하는 바람에 해마다 수해가 계속 발생해 오던 것을 토목전문가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 정 부에서 불과 22조 원으로 4년도 걸리지 않아 가지고 이 정비를 완료 하게 되었습니다.</p> <p>이 22 조안에는 농업용저수지 증보 2조 9000억 원,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3조 9000 억 원, 토지매입 및 손실보상비 3조 3000 억 원, 농경지 리모델링 1조 4000억 원, 자전거길 2000억 원 등 이 모두 다 포함 돼 있지요?</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김완규 그렇습니다.</p> <p>○김무성 의원 따라서 실제 수해방지 자체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된 셈입니다.</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김완규 그렇습니다.</p> <p>○김무성 의원 따라서 실제 수해방지자체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된 셈입니다. 지금 이런 4대강 사업이 수년째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환경 부, 수자원공사, 문화재청, 감사원 등을 비롯해서 심지어 지자체 국감에서까지 4대강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국정감사가 너무 정치 공방에만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 국회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p> <p>만약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입찰 비리, 부실공사 등 옳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밝혀내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하지만 사업 자체의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정치 논리로 폄하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p> <p>수자원공사는 그 간에 감사원 지적사항 등 합리 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근거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는 불식시키고 물 관리 전문가로서 수질 개선 등 사후관리에 제대로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이 4대강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비판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19대국회제337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 11월 09일)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이 4대강의 물을 지천.지류를 통해서 이런, 활용도가 지금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것은 지천. 지류 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가뭄이 심각해지니까 야당 도지사도 지금 현재 상당수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제 4대강은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국토의 젖줄이자 소중한 물 자원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어떻게 국민 을 위해서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 부총리로서 특단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1월1일) 49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4대강에 올 여름 특히 유난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남해에서 시작된, 통영에서 시작된 녹조가 동해 안 포항까지 올라갔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적조입니다. ○김성태 위원적조, 적조. 그런데 현 재4대강에서도 수온이 상승 하면서 녹조가 일부 발생한 부분을 무조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오인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장관께서도 똑바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4대강 안에 그냥.....오염물질이 유입되어 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이 된 것도 그것도 4대강 사업 때문에 말이야 물고기가 떼죽음됐다고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김경협 위원 맞아요. 4대강 사업 때문이에요. ○김성태 위원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김경협 위원 맞다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고기가 죽었다 하면 4대강 때문이라고..... 앞으로 고기죽는다고 해서 무조건 4대강 사업으로 몰고 가는 정치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환경부는 규명된 원인을 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보다는 우리 깨끗한 상수원의, 4대강의 지류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되어서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이것을 더 중시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알겠습니까?				○ (녹조는 4대강과 무관)
제327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4년 8월18일)	김태홍	새누리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김태홍 위원수자원국장, 과거에 매년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홍수 복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4대강 하기 전에? 4조, 5조 들어갔지요? 4조, 5조 들어갔습니다. 4대강하고 난 다음에 홍수피해 복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의 다운됐지요? 없어졌지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지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부 작용, 문제점만 생각하고.....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서명교 그 부분이 현재 총리실이 이치수 관련 문제로 지금 모니터링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선불리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찬열 위원 홍수피해가 4대강하고 지류.지천하고 어디서 몇 %씩이나 났습니까, 그 동안에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서명교 그 부분은 좀 확인해볼 필요 가 있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것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도 가지고 있는데? 96.3%가 지류.지천에서 난겁니다, 4대강에서 난게 아 니고. 그런데 뭐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김태홍 위원 4대강 물흐름, 속도가 났으니까 상류에 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도 해야지."	○			
제19대국회 제31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년 11월 07일)	나성린			"국토부장관, 우선 부산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라고 아십니까? 이것도 국토부관련 사업이지요? 그래서 2010년 12월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되었고, 2012년 6월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부산시가 국토부에게다가. 그래서 그동안 죽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 등 15개 기관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환경부 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검토 중인데 좀 부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것 환경부에서는 아마 난개발, 수질오염, 철새 영향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조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중 일부고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부산으로서는 명운을 걸고 있는 사업이고.난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난개발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서는 안되고 계획적 개발을 할 필요 가 있고요.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하천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 안 되지요. 이것은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등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해 서 우리가	○			

				<p>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p> <p>철새의 영향문제는, 철새 주요 서식 및 이동 공간은 사업지에서 배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부 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신다고 하시지만 가만히 놔둬도 난개발되고 수질오염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런 것을 잘 해결하면서 또 부산의 숙원사업인 부산신항 배후 국제 산업물류도시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p> <p>환경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p> <p>그래서 야당이나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자꾸만 이것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4대강 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부산 신항 배후 국제 산업물류도시 중 일부이고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을 자꾸만 탄축을 걸 어 가지고 방해한다면 부산시민들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p>				
2015년도국감-국토교통제2반(2015년10월2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p>"이제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의 정비가 올해 말로 완비가 되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는데,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양산시가 지난번에 합의를 해서 낙동강 뱃길 복원, 관광 자원화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지요?</p> <p>○부산광역시장서병수 예.</p> <p>○민홍철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생태탐방선 그 선박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인원 정원 이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좀 확충시킬 필요 가 있지 않겠습니까?</p> <p>○부산광역시장서병수 예, 동의합니다.</p> <p>저희들도 그점을 우려해서 지금 45인승 또는 90인승 이상의 관광선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p> <p>○민홍철 위원 좀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p>	○			
2015년도국감-국토교통(2015년9월21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p>"4대강 사업은 뭐니까? 이 게 비수익사업 아닙니까? 물론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수공에게 어떤 특별 우 선권을 줬지만, 그 자체로 아까 우리사장님께서 누누이 '자구노력 이 가능하다'라 고 하는데 친수 구역법을 보더라도 에코델타 같은 신도시 18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결 국4대강 사 업은 그 보나 시설물은 다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따져 보면 비수익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p> <p>○민홍철 위원 그런데 자구노력을 해서 거기에 우선 증당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덜컥 계약에 합의를 해줬다 , 이를테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와서 9월 24일 날 다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할 계획이 있지요?</p> <p>○민홍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이제 5조 6000억을 자구노력해서 수공이 부담 하는 걸로 다시 이게 또 이를테면 계약이 체결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수공에서는 '이게 아니다.</p> <p>4대강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기속될 수도 없다. 우리가 부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왜 말을 못 하느냐 이거지요.</p> <p>결과적으로 볼 때 이 4대강 사업의 부채에는 국민 혈세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p> <p>그리고 9 월24일 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라갈 이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지원 방법을 강구한다고 정부가 해냈는데..... 자, 보십시오. 8조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니까? 첫째, 수공 자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요.</p> <p>○민홍철 위원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법적 근거 없습니다.</p> <p>두 번째, 국가 재정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국가가 이 8조원 에 대한 출자를 전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렇지요?</p> <p>○민홍철 위원 그 다음에 국가가 이 8조원에 대한 기채,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이 있어요. 사장님, 그렇지요?</p> <p>○민홍철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이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첫 번째 수공 자체 해결 방법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재정으로 해 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국가 재정을 직접 지원 하든 출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하든 정부가 채무를 부채, 그러니까 기채를 하든 그 세 가지 방법은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국가에서.....</p> <p>○민홍철 위원 그래서 수공에서도 지금 법무실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p> <p>○민홍철 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하든 수공법에 의해서 하든 명확하게 이게 구분이 돼 줘야, 일반예산이 투입되든 출자가 전환이 되든 채무부담 행위를 정부가 하든 국</p>			○	

				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공에서는 덜컥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느냐 이거지요.				
2015년도국감-국토교통(2015년9월21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p>"지금 이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수공이 투자한 8 조 원 중에서 7 조 6000억 에 해당하는 사업 은 보 건설, 하천 준설 등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이었잖아요. 치수사업이었지요?  ○민홍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댐법에 따라서 분명히 정부재정으로 해야 될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취지가? 그리고 이 4 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자산 은 국가로 귀 속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수공이 투자한 총 33개 사업 중 수자 원공사가13개를 했고, 20개 사업은 국토부 산하 의지방관 리 청이 한 것 아닙니까?  ○민홍철 위원 그리고 지방청이 한 사업이요, 그러니까 수공이 지방청에다가 위탁을 준 형식이었어요. 8조 원 중에서 4조 원어치를 지방청이 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수공에게 위탁을 해 줘야 되는 데 위탁받아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가지방청에다 가 위탁을 합니까? 그것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4 대강 사업을 이미 했고 돈은 들어갔단 말이 지요. 그러나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분명히 이것을 해 줘야 다음에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왜 수자원공사가 5조 6000억의 부담을 안아 야 되느냐, 그에 대해 서 왜 한 마디 말을 못 하느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 왜 자체 적으로 법 적 검토를 정 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꾸로 됐다 이거예요.  수자원공사 8조 원을 가지고 다 공사를 해서 자기 책임으로 했으면 수자원 공사가 책임질 수도 있겠 지요. 이사회 의 결의를 얻어서 그 이사회에 따라서 채무부담을 하 든 손실을 얻든 법적 근거 위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홍철 위원 그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지 못 하느냐 이 부분을 제 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내일 모레 정책조정회의를 하실 건데—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 셔 가지고 명 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아, 이것 우리는 우리가부담할 수 있는 부 분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걸 좀 해주시라 이겁니다. 그렇지요?"</p>			○	
2014년도국감-국토교통(2014년10월14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p>"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보를 설치하고 건설한 비용으로 8조 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했는데, 시설을 완공했으면 기부채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하천에 대한 시설은 국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의 소유 형태로 있고요.  ○민홍철 위원 아니, 영똥한 답변 하지 마시고요. 그 시설사업의 대가로 지금 8 조 원의 부채를 부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부채납의 조건 이 뭐냐 이거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수공이 채무를 부담하고 국가가 보증을 선거나 마찬가지로요 .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었 으면, 또 기부채납도 했으면, 채무이행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사소송이라도 제기 해야지요."</p>			○	
2013년도국감-안행정제2반(2013년10월30일)	박성호	새누리당	대전 대덕구	<p>"4대강 갖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쭙 볼게요. 4대강 완공한 이후 에 충남에 손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완공이 지난 해 되고 나서 현재까지.....  ○박성호 위원 없었지요?  ○충청남도지사안희정 예.  ○박성호 위원 제가 근무할 때 만 해도 충남은 금강이 홍수 때 범람해가지고 공주, 부여, 서천 이 만 날 물난리 났습니다. 그것도 효과라고 보는 데 하여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 사님 관할 범위 내니까 정말로 잘보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하십시오."</p>			○	
2014년도국감-국토교통(2014년10월14일)	송광호	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	<p>"사장님,4대강 공사가 201 5년에 완공됩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호 위원그때 되면 수변 지역 것도 다 완공이 됩니까, 하고 있는 것도?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친수사업을 말 씀.....  ○송광호 위원 예, 친수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광호 위원그 건 계속 하는 거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그렇습니다.  ○송광호 위원제가 봤을 적에는 8조, 어림도 없어요. 못 값아요, 못 값아."</p>			○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준 다음에 정부에서 8조 원을 안 갚아 주면 법적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자리를 내놓는다는 각오로 덤벼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호 위원우리 직원들하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아주 강하게 독한 마음 을 먹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겠어요?				
제19대국회 제3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 10월 29일)	신상진			"김부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4대강 사업의 2차 사업으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강력히 실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4대강 사업이 정쟁의 문제에 빠져 가지고,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는 지류. 지천을 정비 해서 정말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돼서 전국적으로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동안 정쟁 에 빠져서 또 야당의 반대로 잘 안됐습니다. 2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정부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하여튼 지류.지천 사업을 해서 이번 충청권의 극심한 가뭄 문제 이런 것들 이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12년도국감-정무(2012년10월11일)	안덕수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안덕수 위원 그리고 이것 남은 시간에 제가 여쭙 보겠는데, 4대강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사업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전문가들이 와서 견학까지 하고 있고, 지금 담합 관련해 가지고도 대기업한테 큰 이익 을 준 것처럼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때요?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진짜 돈을 벌었는지를 한번 조사해보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건설업체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안덕수 위원 1분만 주시면 제 가 한번 나와 있는 건설업체한 데..... ○위원장김정훈 예, 하십시오. ○안덕수 위원 지금 4대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우에서 나와 계신가요? ○증인 한병하 삼성에서 나와 있습니다. ○안덕수 위원 오늘 아침부터 나오셨지요? ○안덕수 위원 정말 그렇게 불공정하게 담합을 해서 이익을 봤습니까? ○증인 한병하 지금 각사마다 사정은 달라서 제가 정확히 잘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거의 대부분 회사가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덕수 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 확하게 국민한테 못 알린 잘못이 회사에도 있고 또 관련 정부기관에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일을 열심히 잘 해 놓고 담합 의혹에 다가 말이지 무슨 큰 이익을 얻은 것 같이 이런 사태가 나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리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언론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한병하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 그런 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말씀 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알아서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대처 방법 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합으로 이익 없어)
2012년도국감-국토해양(2012년10월12일)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 동구	"○안효대 위원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강우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물 부족국가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예, 그렇 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관리를 잘못하는 국가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내리는 전체 강우량의 몇 %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한 2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73%는 바다로 흘러 내려가거나 안 그러면 증발돼 버리는 거지요? ○안효대 위원우리나라의 특수성이 그렇습니다. 홍수기,그러니까 장마철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오고 그 외에는 갈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효대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렇지요? ○안효대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4대강 사업은 아주 적절한 사업 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중규모, 소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계획도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김건호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그 건 본 위원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도 자원이니깐 필요하다면..... 대규모 댐을 만들게 되면 환경 단체와 대립적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또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 규모의 댐을 좀 많이 만들어서 물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	○			

제19대국회 제316회 제10차 국회본회의(2013년 07월 02일)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p>하다고 생각을 합니다.</p> <p>"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해서 외국인 의 투자 유치를 촉진 시키고 이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행외투법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2010년 12월에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외투법의 적용 범위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법들의 제한을 받는 일부 사업의 경우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 자본의 유치는 국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사업의 조기 육성 등 창조경제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과 구리시의 경우 2012년도에 우리나라가 투자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액 103억 불 의 2배에 달하는 200억불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6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8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 유치가 가능하며, 국내 산업적으로는 그동안 침체된 섬유, 도자기, 가구 산업들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행외투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나 어촌, 항만, 마리나항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대 상지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 와 유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투법의 제정 취지에 대한 고려 없이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들이 친수구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4대강사업의 연장이라고 단정하고 국가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 , 관련 사업들의 미래 성장가능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시듯이 이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남의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김제남 의원님은 산업 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으로 계시면서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셨습니다.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한 법입니다. 존경 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계약을 앞두고 외투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투법이 개정 되면 친수구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디자인, 섬유산업 같은 지식 집약적이고 고용 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인 다양한 사업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동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 해대한민국의 신성장과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조경제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p>	○			
제19대국회 제337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 11월 06일)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p>"금강 물,백제보에서 이것을 보령 댐까지 끌어오는 데 650억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대로 94억 예비비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국토부에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토부장관 나오셨어요?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 53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라도 반영이 안 되면 상당히 난항을 겪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p>	○			
제19대국회제334회 제11차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2015년 06월 25일)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p>"4대강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왜 4대강 이것을 했는데 가뭄하는 데 별 혜택도 없지 않느냐 '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는 동의하지만 상당 부분 동의 안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응용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안전처 차관님께서 얘기 했듯이 저쪽 강원도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4대강하고는 좀 저기 하니까 그런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발표하세요, 실제 용수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다만 그전에 지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정치상황이 허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천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정비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용수로 쓰기로 하자고 했는데 여러 사회적인 반대 때문에 이게 안 됐는데, 나는 지금 국토부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정치적으로 서로 저기 할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뭐 대통령나와도 소용이 있겠어요? 대통령이 하늘보고 뭘 할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각도에서 현재용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p>	○			
2015년도국감-국토교통(2015년9월 21일)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p>"또 하나는 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가 처음 준공이 됐을 때 여러 시민단체 분들이 '낙동강 보는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런 플래카드를 걸고 세미나도 하고 현장에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려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렇게 과장.왜곡해서 함으로써 당시에 혼란상이 굉장했다고 봅니다.</p>				○ (보 안전)



				<p>그래서 이런 문제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 일부 전문가라든지 과거에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크게, 뭐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당장,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은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책임해도 누가 비난이나 공격을 덜하거든요. 그런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됩니다.</p> <p>그래서 저는, 그 평가보고서를 내십시오. 보가 무너진다고 했던 사람 또 전적으로 마치 녹조현상..... 또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녹조의 원인이 4대강 만이 이유인 것처럼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거의 주요 이유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주요 항목에 대해서 이제는 기간도 지났고 하니까 평가를 해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또 이것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틀렸다 이 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말에 4대강조사위원회 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안전성을 평가하고 내년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p> <p>○이노근 위원 특히 당시에 파이핑 문제가 요란 하게 KBS, MBC 헤드라인 에 나왔습니다. 마치 당장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거든요.</p> <p>그래서 이것이 사실관계가 지금 상당히 아닌 것으로 거의 밝혀지고 있는데, 만일 아니라면 그 사람들한테 정중하게 사장 명외든지 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틀렸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p> <p>왜냐하면 시민단체라는 게 책임이 없거든요.</p> <p>그래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견제를 해야 되고, 더더구나 그 사람들은 발언하는 권한은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주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p> <p>(책자를 들어보이며) 제가 오늘 하도,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4대 강 국책사업 반대단체 및 인 명사' 그런데 4대강만이 아니고 국책사업을 직업적, 상습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여 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인, 교수, 학계 또 시민운동 단체 뭐 말도 못 해요.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평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p>				성 문제 제기 는 과장 됨)
2015년도국감-국 토교통(2015년9월 21일)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p>"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아라뱃길의 이용문제, 활성화 문제를 많이 얘 기했습니다. 우선 첫째, 저는 아라 뱃길 여객선 운 항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는 환경 근 본주의자들이 아주 상당 히 많습니다. 정부가 뭇 좀 하려고 그러면 어디 서 나타났는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타나거든 요. 4대강에 나 타났던 사람 이 지금 한강에 다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 지 아십니까? 김정욱 교수라고 인천공항에 반대하던 사람이예요 . 그 당시 신문 에 국제적으로 아주 그렇게 명성을 날리면서 반대만 하는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하고 서명운동 벌이고 굉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바로 한강 시민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 그리고 박창근 교수라고 아시지요? 4대강 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해 쳤지만 아주 비판적으로 접근한 분, 관동대 교수아시지요?</p> <p>○이노근 위원그분이 부위원장 입니다. 부위원장이예요, 부위원장. 그리고 한 강시민위원회가 25 명 으로 구성했는데 소위원회가 6명인데 소위 6명에 국책사업만 아주 골수, 상습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 가 있어요.</p> <p>사장님, 백날 해 봐요. 운항 못 해요. 그런데..... (웃음소리) 왜 웃어요 ? 웃기는..... 왜냐하면 국가의 권력 을, 국가의 권한 을 왜 임의시민위원회에다 맡겨 가지고 그렇게..... 박원순 시장, '저분들이 반대 하기 때문에 이것 좀 어렵습니다' 자꾸 이런 식 으로 와요. 그런데 그 사람 들이 거기만 또 반대 하는 게 아니라 청계천 할 때도 반대했고, 인천 공항 할 때도 반대했고, 아라뱃길 할 때도 반대했고 ,고 속도로 날 때도, 터널 뚫을 때도, 명단이 여기 다 수록돼 있습니다.</p> <p>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협상할 필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게 국가하천입니다. 왜 박 원순 시장이 자 기 권한도 아 닌 것을 다 맡겨 가지고 이렇게 갑과 을이 바뀝니까? 회수하라고 해 요, 회수!</p> <p>국토부! 나오세요. 왜 저 한강을 전부 서울시에 다 맡겨 가지고 국토부가, 나라가 말이야 지방정부한테 일일이 가서 고개 숙이고 거기 가서 '승인해 줘' '승인 해 줘' 합니까?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하면 그래도 그건 맞아요. 그런데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다 맡기고 말이야. 제가 서울시출신인데 서울시 1급 이하, 부시장 이하, 전부 그런 고충을 얘기합니다.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오늘 증인을 불렀는데 아마 예측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안 나 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p> <p>○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서명교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지방하천 뿐 아니라 국가하천도</p>		○		

				<p>모든 부분에 가능하면 관리는 지자체 중심으로 하고 또 지방 권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p> <p>○이노근 위원 그리고 다시 회수를 하되, 만일 서울시에 계속 관리를 맡기려 면 정당하게 돈을 주세요. 서울시는 '국가에서 하천 맡겨 놓고 돈 안주니까 우리 가 권한을 행사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그렇지요?</p> <p>○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서명교 단순한 선착장이면 모르겠는데 거기 선착장이 생기면 거기 편의 시설, 소방, 전 기, 각종 부분이 또 지자체에 갖고 있는 부분하고 적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p> <p>○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충분한..... 다른 하천 은 왜 그러면 지방 에서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다른 하천 은?</p> <p>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팀을 만들든 다른 저기를 만들어야지 돈도 마련하고 그래야지. 아니, 어떻게 해서 중앙 정부 장관 들이 서울시 실.국장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 한 두 번이지.</p> <p>○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서명교 그러지는 않고, 최대한 설득.노력하고 , 어떤 룬이 있는지 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p> <p>○이노근 위원 아니, 지금 3년 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3년째. 세상 말이야.</p> <p>그래서 뭐냐 하면 이미 지어 놓은 집을 어떤 식으로라도 사람이 살 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권한 있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대화가 되겠지요. 사장님, 김정욱 교수 몇 번 만났어요?</p>			
2015년도국감-국토교통(2015년9월 11일)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p>"첫 번째, 구조 적 안전성에 대해 서 과거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나 일부 시민단체, 운동하시는 분들은 4 대강이 그 당시에, 3년 전입니다. 3년 전부터 무너진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다녔는데 그 게 무너졌습니까? 무너졌느냐고요. 어느 교수님이 얘기해야 돼요? 구조 안 전..... 말씀하십시오.</p> <p>○참고인배덕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p> <p>저는 공동조사위원장 중 에서 수자원 분야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p> <p>그 당시에 구조적 안전 성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그게, 구조적으로 안전 한 걸 보려면 일단 구 조 자체가 안전한가도 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 지방의 침하 문제를 봐야 되고 요. 그 다음에 하류의 쇄굴 문제를 봤어 야 되는데, 조사에 의하면 일부 용출이 되는 구간 이 있고 하류에서 세굴이 일부 일 어났지만 구조는 전체적으로 안전하다고 우리 가 결론을 내렸습니다.</p> <p>○이노근 위원여기 보고서 요 약에도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로 나와서 이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p> <p>두 번째로 수질 문제와 관련한 건데, 지금 수질을..... 박 교수님이지요?</p> <p>○이노근 위원 어떻습니까? 낙동강이나 금강이 나 이런 걸 기 준해서 수질을 선후 이렇게 비교할 때 해서 얼마나 되겠다, 또 일부 악화된 곳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습니까?</p> <p>○증인 박석순평가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지 만 제가 따로 이렇게 해 보니까 수질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단지 보고서에서 얘기가 영산강의 클로로필-a농도라고 해 가지고 조류 그게 조금 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낙동강 상류 지역 에서 조금 악화됐다 이 런 이야기거든요.</p> <p>그런데 낙동강 상류 지 역도 제가 해 본 경험으로 보서는 이것 이 뭔가 하면 BOD가 0.8에서 일 점 얼마 됐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도 BOD 2. 0 이하는 검출한계가 2 .0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0.1이 올랐고 0.2가 올랐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p> <p>그리고 영산강 같은 경우 클로로필-a하고 COD 가 좀 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영산강 물은 굉장히 탁했습니다. 탁했는데 이것이 맑아졌어요.</p> <p>맑아졌으니까 과거보다도 녹조류가 조금 더 자란 거지요. 그래서 그 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p> <p>○이노근 위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낙동강 일부 지 역 또 한강 일부 지역에서 녹조현상이 우리가 봐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또 작년에도 그랬고</p> <p>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같은 곳은—제가 서울시 에서 관장을 해 봤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 했어요.</p> <p>그런데 엇그저께 뉴스 보니까 서울에 4개의 하수 처리장이 있는데 3 개에서 무려 2년 남짓에 걸쳐서 30만t의 분유를 방출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p> <p>그런데 여기도 역시 똑 같이 그런 지류나 이런 데서... 들어오지 않았나. 이 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p>			○ (보안성 문제 제기는 옳지 않다)
2014년도국감-국토교통(2014년10월 14일)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p>"수자원공사부채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 했지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이것이 비용을 하자면 잘사는 형이 못사는 동생한테 직접 '나중에돈 줄게' 그렇게 해 놓고 돈을 사실상 주기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리 동생이라도 자기가 채무를 떠안는데 그거 소송해</p>			○

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붙였으면 그것을 가능한 범위에서는 빨리, 정부에서 일부라도 빨리 갚아줘야되고 안되면 소송해야지요. 여기 법무팀 누구 있어요, 법무팀이 누구 있냐고? 사장님 잘 몰라요? 누가 답변해 봐요.

이거는 일종의 민사형태입니다. 약속한 것에 대해 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민홍철 위원님이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상시에 그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 차마 얘기를 못 했지만 이거 이제는 빨리 결론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랑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이노근 위원 아니, 금년도 준다는 것도 다 깎았잖아요. 치렀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서 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현재 이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15년 공사가 끝나는 이후에 정부의 방침을 하고, 들어갈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미리 법조팀이 연구하세요. 그래서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 힘도 없는 수자원공사한테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해요! 꼭 이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 큰빛이끼벌레 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항간에 무책임하게 일부 학자들, 일부 시민단체들—극히 일부입니다—이 사람들이 4대강 때문에 생겼다는니 또 4대강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다는니 또는 여기에 유해독소가 있고, 그 유해독소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손될 뿐만 아니라 상수도 이런데 원수로 공급이 되어야 되니까 인체에 크게 해로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큰빛이끼벌레는 4대강사업 이전부터 공지천, 만경강, 섬강, 청평댐 이런데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대응은 했습니까?

○이노근 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은 초동단계에서 빨리 규명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풍선 커지듯이 커져가지고 감당못 해요,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래서 제가 영산강에 가서도요, 거기 현장을 확인.....

○이노근 위원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걸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사실 법률적, 사회적 권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안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법적 문제를 따질 수 있으면 따지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시간 다 지나면 또 사회는 이미 거기에 오염되어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확실히 하세요.

또 하나가 4대강과 관련해서 4대강 하류에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것도 일부 시민단체, 일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인이라든지, 질소, 비소, 카드뮴, 크롬, 이런 것이 인체에 축적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지요. 그렇다면 실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봤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해 봤어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보 건설로 인해서 퇴적된 퇴적토에 대해서 지난번 환경단체에서 보 주변을 조사한 구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일하게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동안 저희들이 이..... 하천, 호수 퇴적물 오염 평가기준 항목이 열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현재 기준치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러면 기준치 이내로 나왔으면 다시 한 번 또 조사를 해서, 안 되면 주장한 사람들을 책임을 물어요. 아니, 수자원공사가 그렇게 당하기만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정부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하고..... 아까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향이 대청호 있는데와 가까워요, 그래서 가끔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녹조 생겼으면 대청호는 생기지 말아야지, 그거 아닙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노근 위원 우리는 남의 흙집을 잡는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말이야, 잘한 거에 대해서는 인색한 게 우리 사회의 풍토예요. 그 무책임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산재해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이제 국민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시민단체라도.....

○이노근 위원 아니,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정확히 설명드리고, 합동조사도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요. 그렇게 하고도 설득이 안된다면 정식으로 소송 제기해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고.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현재까지도 상생협력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시민단체를 초청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서로 공유해

				<p>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이노근 위원 그리고 4대강 준공된 이후에 가장 잘한 것이 취수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상수 도 물 공급하는 데.</p> <p>그렇다면 원수(原水)에 대한, 이것도 또 오염 문제와 관련되는데, 예를 들어 서 원수 수량, 물량 을 확보하는 것 과 원수의 품질을 더 증진 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이 후가 좀 더 양호 하다, 확실히 객관적인 숫자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지금 4대 강 을 한 이후의 조사 결과 들이 몇 가 지 나와 있는 데요, 거기서 BOD라든가 또 탁도, 또 인, 이 런 것들은 개선된 것으로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 라든지 이런 것들 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일 부 항목, 조류의 성질, 이런 것들은 전보다 조금 부족 하다, 이런 결과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p> <p>○이노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개선 대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 야 됩니다. 그냥 나쁘면 나쁜 대로 방치하지 말고, 또 시민단체 같은 사람들한테 공격당하지 말고요. 알았습니까?</p>				
제313회 - 인사청문특별제2차(2013년2월20일)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p>"특히 4대강 관련해서 국가정책조정회의, 총리실 소관이었습니다. 수자원 공사 관련인데. 그러니까 예산, 자금 조달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특별법도 제정을 해 주고 특히 투자비에 대해서 금융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p> <p>그런데 지금 MB 정권 이 마무리되는 시 점에서 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기업도 국가가 보증을 하면 수출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계약도 하고? 이런 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p> <p>특히 지금 4대강은 태국 같으면 우리가 12조 원 정도에 수출하려고 그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이래서 지금 오히려 부실시공이 있어 갖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인데 정말 우리가 좋은 4대강 사업을 성 공해서 수출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 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p>				○
2015년도국감-국토교통(2015년9월21일)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p>"지금 수변개발을 통해서 댐.보 주변의 이용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질의 내용을 해보겠습니다.</p> <p>실제로 우리가 4대강 사업하면서 친수구역 개발해서 1조 원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수익도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까운 스위스 레만호가 얼마나 관광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요?</p> <p>○이완영 위원 그 주위에는 아워락시설, 고급레스토랑, 고급빌라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p> <p>○이완영 위원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우 리 보가 만들어 지고 나면, 그런 고급레스토랑 얘 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제대로 국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엄청 창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의하시지요?</p> <p>○이완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러 면 이게 개발이 자꾸 늦어지나, 환경부에서 환경관리 측면을 우려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개발 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지요, 동의가 되지요? 그렇다면 환경부하고 좀 협의해서..... 서 국장님, 이 문제도 국토부가 환경 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p> <p>그러면 환경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빌라라든지 고급 위락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다면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시설을 완전히 돌려주는 셈이고 또 수공은 잔여 수익이 생겨가지고 부채상환에도 도움이 된다, 과 이 점을 지금 국토부나 수공에서 매우 간 하고 있다, 이걸 좀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p>				○
2015년도국감-국토교통(2015년9월11일)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p>"저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칠곡. 성주.고령의 이완영 위원입니다.</p> <p>유독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동강, 4대강 사업 에 관심이 많았고 지역주민 들과도 대화가 많이 있습니다.</p> <p>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게 내 귀를 의심해요. 4대강 사업 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입증 이 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게 아무 효과 없다고 입증된 보고서는 아무 것도 없지요, 우리 세 분 교수님? 그런 건 없는 거지 요, 그렇지요?</p> <p>○이완영 위원그다음 에 우리 김태웅 교수님, 아까 이수효과는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 가뭄피해 보완대책은 없다는 취지였나요, 계속 좀 보완 을 해야 된 다는 취지인가요?</p> <p>○중인 김태웅 예, 비상용수를 활용한다고 목적 이 돼 있는데 비상시가 어 떤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상용수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은 빠져있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p> <p>○이완영 위원 그건 아마 국토 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 가 있을 거라고 믿 습니다. 그렇지요 ? 올해 가뭄이 엄청난 것 다 들 인정하시지 요? 교수님들, 그렇지요?</p> <p>○이완영 위원인정을 하는데, 제가 우리 지역 에서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 번 가뭄 같으면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낙동강을 사람이 발 정 도만물이 있어 가지고 그냥 건너갈 정도였다, 이런 말씀</p>				○

				<p>을 하시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고마움 과 감사 그리고 뿐만 아니 라 우리 농경지 에 물 부족함이 없 이 그대 로 댈 수 있다 는 것 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 는 주민들의 감 사 의 표현을 들었는데, 아까도 우리 이미경 위 원님도강정보에 대해서는 이수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김태웅 교수님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서 딱 다행입니다, 강정 보도 우리 고품에 있기 때문에.</p> <p>이렇듯이 우리가 이 4대강, 신라시대부터 치산 치수라고 그랬습니다. . 과학적으로 용량이 얼마, 수량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치산치수라 함은 물을 충분히 우리가 보관 하고 있어야 되고 ,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질도 좋아야 되 는 게 치산치수라고 보면 녹조현 상이, 우리 어릴 때는 4대강 전에도 얼마든지 강가에 녹조가 많이 있었다, 니 박석순 교수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p> <p>○참고인 박석순 예, 과거에 낙동강의 녹조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이 있고 학회에도 많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p> <p>○이완영 위원 그런 면 에서 우리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뒀든 안 뒀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마 는 우리 배덕호 교수님, 지금 이 마무리된 시 점에서 우리가 올해 가뭄도 겪어보고 했는데 예산은 그렇게 들었지만 정말 치산치수 측면에서는 잘 했다, 이런 평가를 하시지요?</p> <p>○참고인 배덕호 오늘 가뭄 문제를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가뭄 대토론회 때 한 번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p> <p>(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뭐냐 면, 이 자료 인데 한번 봐 주시면요, 사실 우리가 가뭄이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산간 계곡수 마르는 정도에 불과한데 정말 걱정인 건 다목적댐에 물을 못 채우면 수도권에 식수로 공급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가뭄이 왜 그랬냐 하면 사실 작년 여름에 비가 오기는 왔는데 남부지방밖에 안 왔습니다. 이게 중부 권은 안 올 라오다보니까 여 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목적댐을 5월 달에 비워놨다가 10월부터 이렇게 해 서 1년 주기로 하는데 작년 에 이게 댐을 못 채우다 보니까 금년 에 물 관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예전의 한 60%밖에 못 채웠거든요.</p> <p>○이완영 위원 그렇습니다.</p> <p>○참고인배덕호 그런데 이게 내 년 봄의 가뭄을 굉장히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직까지 가뭄 걱정을 해야 되느냐 , 보에 확보 된 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에 국한된 지역에 쓸 수 있는데 제발 좀 부 탁을 드리면 이걸 댐과 보를 연계해 해서 용도에 따라서 용수를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지 아니면 내 년에는 굉장히 큰 가뭄 우려가 있습니다.</p> <p>○이완영 위원우리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완할 걸 제대로 말씀해 주셔 서, 그 정도는 저는 현 4대강 사업 이후에 충분히 보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p> <p>끝으로 박석순 교수님, 아까 수자원공사 부채 로 이렇게 한 것 은 조금지적을 주셨는데 어쨌든 부채에 대해서 우리 정 부에서 국가정책회의를 통해서 만 일 자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재정 으로 갚아 줘야 된다고 이렇게 협의한 바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 해서는 수자원공사 가 무슨 죄 가 있습니까, 그렇지요?</p> <p>○참고인박석순 예.</p> <p>○이완영 위원 그러면 서 재정지원 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p>				
2015년도국감-국토교통(2015년9월 21일)	이우현	세누리당	경기 용인시감	<p>"옛날에 물부족국가가 아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가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사전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세요?</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과거보다 홍수가 더 크게 오기도 하고 또 가뭄이 지금처럼 2~3년 이렇게 연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이 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이 국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또 투자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이우현위원 4대강 주변이나 아라뱃길 그 주변에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있지요?</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예, 많이 있습니다.</p> <p>○이우현위원 그런데 계획은 지금 우리 수공에서 뭐 세운 데가 있습니까?</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현재 아라뱃길 주변에도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또 서해5도에서 수산물을 운송을 해서 거기서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값에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드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p> <p>○이우현위원 한강이나 아라뱃길이나 잘 만들어놨잖아요. 4대강도 뭐 관광자원에서는 큰 자원입니다,</p>	○			

				<p>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적인 것을 좀 더..... 관광인프라가진분들하고해서,우리나라가지금많은관광객들이오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데도좀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그렇습니다.기후 변화 때문에 과거 보다 홍수가 더 크게 오기도 하고 또 가뭄이 지금처럼 2~3년 이렇게 연 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국민들이 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이 국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또 투자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이우현 위원4대강 주변이나 아라뱃길 그 주변에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있지요?</p> <p>○이우현 위원 그런 데 계획은 지금 우리 수공에서 뭐 세운 데가 있습니까?</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현재 아라뱃길 주변에도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또 서해5도에서 수산물을 운송을 해서 거기서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값에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드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p> <p>○이우현 위원 한강이나 아라뱃길이나 잘 만들어 냈잖아요. 4대강도 뭐 관광자원에서는 큰 자원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적인 것을 좀 더.....관광 인프라 가진 분들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관광객 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p>				
2015년도국감-국토교통(2015년10월8일)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p>"오늘부터 그렇지 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봄까지 비가 제대로 안 올 경우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릅니다. 산업기반 시설인 기업들 공업용수까지 굉장히 제약을 받으면서 큰 타격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래 지난번에 제가 수자원공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이 보에 지금 물이 넘치고 있는데 이 물을 제대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취수문제는 , 4대강 사업의 완성은 취수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으로 물을 가뒀는데 이 물들을 제대로 공업용수든 식수원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후속대책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p> <p>○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선 제일 먼저 보령 댐이 도수로를 연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p> <p>○이장우 위원 금강에서 보령댐까지 도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625억 들어서 지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을 했거든요. 이것 차질 없이 하고 최대한 설계를 당겨서 내년에 신속하게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p> <p>○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빨리 하겠습니다.</p> <p>○이장우 위원 또 지금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지역에 장관님, 국정감사 끝나시면 한번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p>	○			
2015년도국감-국토교통(2015년10월8일)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p>"오늘부터 그렇지 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봄까지 비가 제대로 안 올 경우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릅니다. 산업기반 시설인 기업들 공업용수까지 굉장히 제약을 받으면서 큰 타격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래 지난번에 제가 수자원공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이 보에 지금 물이 넘치고 있는데 이 물을 제대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취수문제는 , 4대강 사업의 완성은 취수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으로 물을 가뒀는데 이 물들을 제대로 공업용수든 식수원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후속대책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p> <p>○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선 제일 먼저 보령 댐이 도수로를 연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p> <p>○이장우 위원 금강에서 보령댐까지 도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625억 들어서 지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을 했거든요. 이것 차질 없이 하고 최대한 설계를 당겨서 내년에 신속하게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p> <p>○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빨리 하겠습니다.</p> <p>○이장우 위원 또 지금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지역에 장관님, 국정감사 끝나시면 한번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p>	○			
2015년도국감-국토교통(2015년9월21일)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p>"제가 가장 심각한 보령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p> <p>지금 보령댐이 실질적으로 한 48만 명의 식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p> <p>○이장우 위원 보니까 충남서부권 보령, 서천, 청양, 홍성, 예산, 서산, 태안, 당진 48만 명인데 지금 역대 최저 강수량 또 강우는 예년의 8%밖에 안 돼서 강수량이 절대 부족하고 또 보령댐 수위가 역대 최저의 수준이고 또 저수율도 최저 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만약에 내년 6</p>	○			

				<p>월까지 강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백제보에서부터 보령댐까지 연결하는 관로를 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과,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담계통이라든지 또 아산계통이렇게 해서 보령댐에서 하는 유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해서... .. 두 가지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여쭙 보는 데 지금 4대강 사업을 금강도 실시했는데, 금강에 금강 세종보하고 공중보하고 백제보 세 군데가 있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본래 이 4대강 사업이 끝나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연결 공급관로를 공급하는 계획 이 있었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예, 있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시행이 현재까지는 안 되고, 또다시 추진되고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되지 않았습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거 선진국도 이 치수는 한 100 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래서 4대강의 치수가 끝난 게 아니고 치수의 시작인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이 4대강의 보를 막아봤는데..... 이게 지금 3급수 정도 된다고 그러지요, 금강이?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이 3급수를 만약에 연결 관로로 해서 보령댐이나 아니면 직접 서부권 정수장으로 바로 뺏아서 거기서 정수하면 마시는 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적으로는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아직 그 설계를 몇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좋은 음용수로 할 수 있는 것은 댐에, 그리고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낮아진 것 이런 것 들을 같이 활용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4대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대강 사업은 치수의 시작이다, 4대강 사업이 끝나니까 4대강의 치수가 끝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미비점도 드러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보완하고 또 이 4대강 사업으로 한 치수를 적 국민 생활용수, 공업용수에 저희들이 기에 공급할 수 있고 또 가뭄이나 홍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단기,중기, 적어도 예를 들어10년,20년,30년 ,50년,100 년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치수 개념을 확실하게 완성하려면 이런 종합 적인 장기 계획 하에 지금 부터 차곡차곡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충청권 서부지역은 가뭄 때문에 마시는 물하고 또 공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얼마나 큰 손실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이장우 위원 그거 늦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자원공사 사장님 하고 여기 국토부 말 이지 요, 4대강 사업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이 많습다만 이미 4대강 사업은 끝난 사업이에요. 끝난 사업 에서 추가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이 완전 선진국형으로 치수사업을 완결할 때까지 어떤 계획이 필요한 지, 결국 장기적인 종합발전 계획이 다시 필요한 겁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이지 4대강 사업이 일부 문제 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한다고 해서 중단하면 4대강에 투입한 22조원은 날리는 경우가 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장우 위원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최고의 어떤 치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가 앞장서야 되고 국 토교통부가 적극 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비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 예요.  지금 어느 선진국이 우리처럼 4대강, 어떤 강을 치수 개념으로 딱 했다 고 해서 단기간에 끝내는 것 없어요. 우리처럼 4년 만에 끝내는 치수계획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p>				
2015년도국감-국토교통(2015년9월 21일)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p>"이노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국가하천 한강 그거 회수하세요, 서울시에. 완전 좌파들 말이지요, 나라 잘되는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이런 소수의 몇 명 때문에 국책사업이 흔들리고 국민이 낸 혈세가 낭비 되고. 이거 되겠어요?"</p>			○	

				<p>아라뱃길도말이야, 이 미 돈을 그렇게 많이 들 여서 했으면 관광 하고 물류하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상에 서울시에서 말이지요, 제대로 권한도 없는 사람들한테 자문위를 맡겨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겨 가지고 배도 못 띄우게 하고 말이야, 여의도 선착 장 이용도 못하게 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 디 있어요.</p> <p>국토부 저거 회수하세요 . 위탁관리하지 말고 직접 관리하세요.</p>				
2014년도국감-국토교통(2014년10월14일)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p>"사실 수자원공사가 부채가 2조 원대, 부채비율 이 20%밖에 안 됐는데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부채비율이 120% 가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장우 위원 그래서 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 또 전 직원 들이 사실 걱정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근본적으로 시작된 것은 물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극복 차원에서 가뭄이나 홍 수.태풍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진행된 것은 맞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변화가 많습니다.  ○이장우 위원제가 몇 년 전에 호주에 갔는데 호주 중부지방이 물 부족 문제 때문에 제한급수 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 나라 같은 9시 메인뉴스에 물을 과다사용해서 당국에 적발되어가지고, 뭐 그런 케이스가 나올 정도로 물이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후 문제 때문에 물 분쟁이 앞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반도도 결국 예외가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 때 태풍 등에 의한 수해피해 이런 것에 대한 세차례의 수해방지 대책이 긴급히 수립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또 추진력 부족 등으로 해서 계획만하고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DJ정권에서는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200명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피해액이 약 5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범정부적수해방지대책을 만들어 2004년부터 시작해서 43조 원을 들여 강을 살린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무산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에 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70 여 명 사망을 했고 피해액이 약 3 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10년 안에 87조 원을 들여 방재구축 시스템을 만들기 로 했습니다만 역시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결국 4 대강 사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기남 위원님 말씀하셨던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낙동강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영산강만 했으면 어땠을까 금강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정책을 결정을 했을 때 지역 갈등이 아마 최고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왜 낙동강만 하느냐 충청도 금강은 뭐냐 영산강만 하느냐 이 충청도는 뭐냐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이, 고민도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 8조 원의 부 채를 안기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하는가 이런 말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LH공사에 빚을 과다하게 지게 만들고 이명박 정부 때는 수자원공사를 이렇게 했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님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태풍이나 이런 수해 때문에 피해 입은 게 얼마나 됩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지금 4대강 사업을 한 이후에 수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큰 강 주변에서는 거의 줄었습니다.  ○이장우 위원거의 없었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거의 없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2011년 도에 전국 평균 강우량이 640mm였습 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4대강 사업정비를 안했다면 큰 강 주변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그렇습니다. 저희 들이 그래서 4대 강 주변에 과거에 수해가 났던 곳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정비 이후에 수해가 나지 않은 내용 또 가뭄이 있던 곳에 가뭄이 나지 않은 곳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장우 위원사장님 그래서요, 이 치수 문제는 사실은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이 치수 문제는 정말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적어도 50년, 100년까지 내다보면서 차곡차곡 합니다.  저는 이4대강 사업은 이미 완결이 됐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계속 드러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대한민국치수를 완전히 완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났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치수 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물 부족 문제, 홍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4대강 사업 을 완료하면서 지금부터 또 다시 드러나는 작은 문제들까지 다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가는 것이 장래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p>			○	



				<p>그렇지만 수자원공사가 안고 있는 이런 부채 문제는 지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금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현재 지금 관계 부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는 어떻습니까?</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국토교통 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5 년도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p> <p>○이장우 위원정작 중요한 기재부 는 조금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저는 정부에서, 기재부도 그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p> <p>○이장우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 물론 사장님과 임직원들이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여기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나와 있지요? 국토교통부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의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또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p>				
2012년도국감-국토해양(2012년10월12일)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p>"○이장우 위원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 한 것처럼 국가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다 보니까 일부 무리가 있었다,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p> <p>또 하나는 지천이나 지류 개선을 우선적으로 먼저 했어야 되는 데 4대강을 일시에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p> <p>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지요?</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김건호 그렇습니다.</p> <p>○이장우 위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하던 사업 박원순시장이 되고 다 갈아 엮었지요?</p> <p>○이장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본인들이 한 사업은 본인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거예요.</p> <p>그다음에 이런 현상도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4대강 사업을 중간에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또 갈아엮었을거예요, 그렇지요? 얼마나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4대강 사업은 결국 한꺼번에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p>				○ (4대강 속전은 당연)
2012년도국감-국토해양(2012년10월19일)	이재균	새누리당	부산 영도구	<p>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우리 국민들 1000만 명 이상이 4대강 사업이 관광지화 돼서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쟁점화 하자는게 아니고 강주변에 있는 수변공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조 성하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활용계획이 있습니까?</p>		○		
2012년도국감-국토해양(2012년10월19일)	이재균	새누리당	부산 영도구	<p>"○이재균 위원수자원 공사 김건호 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국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 출신 이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노근 위원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합니다. 오늘 여야 많은 위원님들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당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4년 전으로 한 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p> <p>2008년 당시 MB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발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가 왔었지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이 재정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노력했고 우리나라도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형 녹색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을 선정 했는데 그때 4대강 사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첫째는 지난 역대 정부도 다 치수사업, 강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강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고, 그게 누적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홍수방지 라든지 재해 예방 그 다음에 물 부족 문제 해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급했지요.</p> <p>일반적으로 4대강 사업이 토건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4대강사업을 통해서 기계라든지 전자통신이라든지 한 400여 업종에 많은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파급효과도 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많은 민원과 요구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국감에서도 확인 했습니다.마는 야당 출신인 박준영 지사 같은 분도 영산강 사업이 아주 시급하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이런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은 우리가 경제위기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목되고 있지요.</p> <p>그리고 무엇보다도 4대 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대한영을 받고 또 우리국민들에게 이제 관광명소로서, 지난 9월에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우리에게 관광 명소가 되었다 하는 점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받았고 또 요즘 가수 싸이가 외국에서 호평을 받고 다시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듯이 이 4대강 사업을 국내에서보다도 외국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주고 호평을 해주고 있다는</p>		○		

				<p>점이 지요. 특히 기후변화나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서 평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형국책사업에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야당 위원님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입찰 담합 의혹이라든지 이런 몇가지 문제 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4대강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p>				
제19대국회 제33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 10월 30일)	이종배			<p>"4대강 사업으로 이왕 만 들어 놓은 16개 보에 우리가 7억 2000만t 더 여 유수량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놔는데 이런 수량을 이렇게 보면서도 가뭄으로 고생하는 농민들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는지 이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그래도 서해 지역에 백제 보에서 물을 끌 수 있도록, 보령 댐에 물을 끌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아주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에 는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 년 봄 농사에는 아마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 서 아주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농식품 부에 서 이렇게 11개 다기능 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곳이 20개 지구입니다. 20개 지구인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국토부에서 이에 대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에서 이런 농업용수뿐 만 아니고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하 고 있는 것 아 시지요? 그것이 내년5월 또 내년 10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빨리 좀 미리미리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 쉬운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지금 공주 보에서 예당저수지에 끄는 것도 빨리 좀 해야 되 지 않느냐는 건의도, 충남도 지사도 건의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관련해서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재난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 고 오랫동안 가뭄이 심한 이런 곳은 우 선적으로 예타를 면제해 줘서 라도 시급히 시 행해야할 곳은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 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또 국토부에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예타 들어가면 이게 또 한 1~2 년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더 시급한 곳은 일부 라도 조속히 예타를 착수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p>	○			
제19대국회 제309회 제5차 국회본회의(2012년 07월 18일)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 김천시	<p>"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4대강을 보고 또 서울에 있는 분들이 강을 못 보다가 4대강을 보고 과거에 내가 보던 강하고 다르다 이래서 천지개벽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병석 부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번에 이렇게 날이 가물어도 우리는 물 준비 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 다. 그래서 4대강에 대해서 는 국민들이 인식을 바로 갖기 위해서..... 집도 잘 지어 놓으면 자기 집에 초 대를 합니다. 그래서 강도 잘 해 놓았으니까 특히 반대 많이 하는 시민단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 들 을 초대해서 이게 어떻게 과거와 달라졌는지 눈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런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p>	○			
2015년도국감-국 토교통(2015년9월 21일)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 갑	<p>"사장님, 경인 아라뱃길에 지금 배가 2개 노선이 다니는데..... 아니, 다녔었지요. 4월까지 130t급 200인승짜리 우바호가 있었고 현 재는 연안부두에 서 인천, 김포까지 다니는 현대 크루즈가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런데 KDI 예 측 대비해서 지금 19.4%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고 보시나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아라뱃길 내에만 이렇게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한강이나 아라뱃 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는 인천과 이렇게 연결하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 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옳게 보셨습니다. . 거기에다가 저 는 한 가지 더 보면, 물론 KDI 예측이 정확하지 않 았을 수도 있지만 '이 아라 뱃길에 배 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업성이 떨어진 다. 제2의 4대강 사 업이다' 하면서 지 금 4대강 사업이랑 전혀 관계 가 없는데도 이 거 굉장히 부정적인접근을 하면 서 활성화 노력 을 안 한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두 번째로 는 지금 사장 님 말씀대로 한강에 선 착장이 없어 갖고, 서울시민들 이 서해 바다로 올 수 있는 그 길 자체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것은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는 그런 생각이거든 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2014년도에 국감에서 지적도 하고 해서 국비 4억 원으로 한 강 뱃길을 여는 수심 확보까지 다 했는데도 지금 해결 이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공에서 서울시 에 임시 선착장 허가를 2015년도, 올해 5월 8일 날 선착장 허가를,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안전사고와 승하선 시 설 기능 저하로 사용이 어렵다고 하면서 '국비로 별도 로 선착장을 마련해 달라' 이래서 수공에서는 5 6억 반영까지 했습니다. 그렇 지요?</p>	○			

				<p>○이학재 위원 그런데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2015년도 8월 24일 날 우리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한건데 700t 급 통합 선착장 조성을 하면서, 우리 수공 에서 5월 8일 날 임시 선착장 허가 까지 막 내면서 1000t급 접안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에 1000 t급 공용선착장 계획 이 지금 미포함 돼 있습니다. . 이거 왜 이렇게 됐나요?</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저희들도 그걸 요 청했고, 국토부에서 서울시랑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서.....</p> <p>○이학재 위원 서울시 에서 반대 했지요? 이거 한 강시민위원회 이런 데서 지금 반대했지요?</p> <p>○이학재 위원이거 말이 안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p> <p>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 사한 바에 의하면, 올 3월 달에 조사한 건데 한강 -아라뱃길-서 해 간의 유람 선 운영을 위 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시민의 72%가 ' 이거 좋다',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예, 그렇습니다.</p> <p>○이학재 위원서울시민 72%가 찬성을 하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아라 뱃길의 방문객 수가 지금 매년 배로 증가해 갖고 올해 1000만이나 돌파하고 있고.</p> <p>그래서 서울시의 한강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하고 지금 수공에 서 추진하는 한강-아라뱃길-서해 유람 선 이 두 가 지 사업을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이용 할 수 있고 서울시민도 친수공간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서울.인천.경기 지역경제도 활성화 화가될 수 있는데 저는 왜 이 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생각 어떠신가요?</p>				
2014년도국감-국토교통(2014년10월27일)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 갑	<p>"수공 국감에서 4대강 아라뱃길에 대해서 물관 리가 식수나, 공업용수, 물 자체의 이용, 또 홍수 조절 뿐만이 아니고 친수공간을 활용하는 데 중점 을 둘 때가 됐다 이런 말씀 을 드렸었는데, 수습조를 들어서 만 든 시설이니 만큼 이것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 될 수 있는 가 하는 측면에 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p> <p>특히 아라뱃길에는 올해 만 450만이 다녀갔고 곧 한 2000만 명이 다녀갈 수도권의 명소로 자리 잡 은 만큼 주차라 든지, 캠핑이 라든지, 취사, 이런 문제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잘 세워 주시고 요. 특히 항만 구역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데 이 것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만큼 국 토부에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p> <p>정부 공공정책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채들, 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4대강 사업이라든지, 또 공공 요금 인상통제와 관련해서 생겨났던 부채들, 또 요금을 감면하면서 생겨난 부채 들, 이것은 다 정부 에 서 책임지고 해 결해야 될 부채이잖아요. 여기에 관해서는 국토부에서 감축계획을 수립해야 됩니 다. 각 기관에서 감축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 지 않으면 감히 어 떻게 이게 기재 부하고 협상 을 통해서 해결하겠나요.</p> <p>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 원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향후 에..... 또 정부도 공기업이 방면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기업에 떠넘기고 그런 게 하다 보면.</p> <p>그래서 국토부에서 공공정책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 시고, 또 그렇게 해 야만 공기업에서 발생 시 킨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또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생 긴 부채에 대해 서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번 국감과정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 정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p>			○	
2014년도국감-국토교통(2014년10월20일)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 갑	<p>"시장님,2012년도 1 2월에 여의도에서 인천 세어도 간에 1000t 급 선박 운항면허를 신청했을 때 최소수심이 안 된다고 , 지금처럼 최소수심이 안 돼서 불허한다 이렇게 하셨었지요?</p> <p>○이학재 위원 그랬는데 서울시 에서 그러면 최소수심을 빨리 유지 하도록 준설 을 해야 될 것 아닙 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제가국토부에 요청해 가지고 국비로 이것을 했습니다.</p> <p>조금 전에..... 이미 최소수 심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세요, 최소 수심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는 .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최소수심 유지 되는데 이제는 안전 때 문에 못한다고 또 다른 핑계를 대시는 겁니다.</p> <p>서해 뱃길연결사업에 대해서, 아라뱃길에서 한강 연결하는 사 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시장선거 때 공약하셨지요?</p> <p>○이학재 위원 그러니 까 아라뱃 길하고 한강하고 연결하는 서해 뱃길사 업에 대해 서 반대한다고 공약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소신을 갖고 계신가요?</p> <p>○서울특별시장박원순 저는 공약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p> <p>○이학재 위원 왜 없어요? 있지 요. 저는 시장님께서 아라뱃길에 대한 부정적 인 정치적 선입견, 이 것 때문에 지금 다 안되 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p> <p>○서울특별시장박원순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p> <p>○이학재 위원 특히나 아라뱃길 이 찬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준공이 되어</p>			○	

				<p>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활용해가지고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경인 아라뱃길, 한강 연장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서 중 단 공약을 하셨는데요. 아까 착오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직전이 아니고 5기 때 공약을 하셨었어요. 그렇지요?</p> <p>○이학재 위원 그랬는데 그때 아마, 저는 시장 님 입장에서 보면 화물 운 송부분에서의 경제성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라뱃길 같은 경우에 올해에만 450만이 다녀갔고 2, 3년 내 로 1000만 이상이 틀림없이 다녀갈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내로 한2000만 명이 다녀 갈 것으 로 지 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p> <p>그러니까 의외의, 아라뱃길은 침수 예방, 화물 운송, 관광레저 친수공간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화물 운송 부분에서는 정말 별 성과가 없는데 관광레저 친수공간에서는 엄청난 폭발적인 수요가 지 금 발생하는 것입니다.</p> <p>(박기 춘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말 실사구시의 이념으로, 그리 고 또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잘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태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 장님께서 전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셨다 하면 지금은 있는 시설을 관광이나 레저나 또 수상 스포츠나 수상레저나 이런 쪽에, 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서해5도민의 수산물을 아라뱃길을 통해서 내 륜의 분들에게 팔고자 하는 그런 일을 저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시장님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 립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p>			
2015년도국감-국 토교통(2015년9월 21일)	이헌승	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을	<p>"우리 이찬열위원님께서 4대강 사업이 SOC사업 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SOC사업이라고 분명 히 생각 하고요. SOC사업 이 아니라고 한사람을 정 신 나갔다고 했는데,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 고 정신이 똑바로 박 혀 있는 사람입니다.</p> <p>그래서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반대 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런 식 으로 매도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표현을 할 때 좀 유의하면서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 중에서 찬성하 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 도 있잖아요.</p> <p>그 표현에 대해서 좀 그걸 해 주시고요.</p> <p>정말 이 4대강 사업, 8조 적자가 났지만 우리 가 다른 부분에서 8조 이상 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 면 이것은 성 공한 사업입니다. 단순히 장부상 의 적자를 가지 고 평가할 것이 아 니라고 생각이 되 는데, 올해 가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p> <p>아까 보령댐인가 고갈되고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자료를 봤는데, 정말 만약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올 여름 내내 저수지 댐에 서물을 방류를 해야 되잖아요, 강바닥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데 올 해 그 방류 한 실적이 없다면요?</p> <p>○ 이헌승 위원 그러면 그만큼 저 희들이 이득을 본 것 아닙니까?</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그만큼 많이 댐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p> <p>○이헌승 위원 그리고 최근 기 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 집중호우 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4대강 사 업 이후에 정 말 큰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까?</p> <p>○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지금 그렇게 홍수 피해가 없었습니다.</p> <p>○이헌승 위원제가 그래서 여 기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저도 작년 제작년에 했던 기억이 잘 안 나서 자료를 보니까 20 12년도에 큰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을 했고 3개 태풍이 연속 상륙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큰 홍수 피 해가 없는 것으로 나 왔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니까99년도 같은 경우 에는 연도별 4대 강 피해액 해 가지고 무려 5300 억까지 나왔었더라고요.</p> <p>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는 데, 지금 당장은 8조 원의 적자를 봤지만 홍수나 가뭄 시 의 피해예방액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는 꼭 적자라고 볼 수 없는 사 업이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p> <p>그래서 많 은위원님께서 서 부채 대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는 7 대 3 비율로 나누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p> <p>지금 예를 들면 친수구역 사 업으로 1조를 하겠다. 고 그랬는데, 에코델타시티를 가장 맥시멈, 최대 이익을 감안해도 5 600억 정도 인데 나머지4400억을 메울 수 있는 친수구역 사업 대상지가 없잖아 요, 솔직하게. 지금 나주하고 금강유역에, 다 몇 백억 짜리밖에 안 되는 데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 습니까? 저는 이게 좀 부 족하다고 보고요.</p> <p>그리고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900억 정도 났는데 이걸 22년 간 다 적자 보전에만 투입 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벌여야 되니 까 정말 국토부 하고 좀 조정 을 해서 5 대 5 내지 는 6 대 4 정 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적극 해 주십시오.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p>	○		

2013년도국감-국토교통(2013년11월1일)	임내현	국민의당	광주 북구을	여러 위원님들이 국토부 소관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는데, LH공사가 40 %나 차지하는 건 그렇고, 특히 수공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강력히 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여서 정부가 결자해지의 관점에서...				○	
2015년도국감-국토교통(2015년9월21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임의 유무를 떠나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갖고 이 미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과연 그러면 수공이 나머지 5조 6000억에 관련해서는 정말 그 기간 동안 향후 자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	
2014년도국감-국토교통(2014년10월13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이게 법률에 의하면 사실 수공..... 왜그러냐하면 수공이 지금 빚더미에 올라 앉고서 이자 부담하기도 힘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자 뒷받침 하고 원금도 갚아 줘야 될 판국인데, 4대강 때문에. 사실이 돈은 국토부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9대국회 제3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 11월 04일)	조원진			"지금 4대강주변에 한 1000만 명 이분들은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애 기했지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쨌든 홍수, 가뭄 막아 주고싶 은데 이제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개발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 부풀어 있어요. 특히 부산은 선도 프로젝트, 대구도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영동 한소리를 하니깐 기가 막혀요. 저는 이정부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얘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다음 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것 같아요? 정권 바뀌는 것은 요원하니까 소신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제19대국회 제337회 제6차 국회본회의(2015년 10월 13일)	조해진	새누리당	경남 밀양시 창녕군	"지금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유역은 지금 관리수위가 넘어가지고 물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그 유역에 있는 주민들은 가뭄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 물이 넘쳐흐르는 4대 강하고 바닥이 드러나고 또 바짝 발짝 땅이 타 들어가는 가뭄 지역하고 이 풍경이 너무 대조적 입니다. 가뭄 걱정 없는 4대강 유역의 주민들의 그 여유하고 가뭄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그 한탄이 너무나 대조적 입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한동안은 이 4대강을 왜 한꺼번에 했나, 하나만 먼저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4대강할 때 왜 섬진강까지도 못했느냐, 그 지류.지천까지 왜 못했느냐, 그리고 저수지.소류지 같은 데를 준설하고 둑 높이며 가지고 저수량을 왜 더 못 확보했느냐, 중.소형 댐 그때 왜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수자원 확보 못 했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리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기후 변화, 기상이변이 계속 심해질 거고 기상청은 이 10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 끝나고 내년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지금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미뤄 뒀던, 4대강 논란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미뤄졌던 지류.지천 정비하는 거, 또 저수지와 소류지 준설하고 둑 높이 고저 수 용량 넓히고 중 .소 형 댐 만드는 거, 이 일을 빨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긴급하게는 4대강의 넘치는 물을 빨리 멀리 떨어져 있는 가뭄 지역에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하게 하는 이수사업을 빨리 저는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듣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내년 10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10월에 연구결과보고서하면 예산이 후 내년 예산은 안 잡힌 고 2018년 예산이라야 겨우 빨리해도 잡힙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당겨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나와서 상반기 정부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2017년부터 는 이 사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이 부분은 잘 살피셔서 좀 독려를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2012년도국감-국토해양(2012년10월12일)	조현룡	새누리당	경남 함안 함천 의령군	"○조현룡 위원 함안 의령.함천 지역의 조현룡 위원입니다.우선 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 국감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4대강 주변에 지역구를 둔 우리 위원님들은 4대강 사업을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우선 최근에 볼라벤을 비롯한 태풍이 4개가 약 일주일 간격으로 전남, 남해 지역하고 또 서해안지역으로 갔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은 피해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태풍으로 인한 그런 피해는 아주 많이 감소가 된 것 으로 되어있고, 특히 102년 만에 온 가뭄이라고 그래도 4대강주변에 가뭄이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4대강사업을 한 2개 정도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일부 시				○	

				중의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도 도의 정책적인 판단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이 해외에서는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국감-국토해양(2012년10월12일)	조현룡	새누리당	경남 함안 합천 의령군	○조현룡 위원 4대강 사업하면서 자꾸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세굴현상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강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굴현상이라는게 용어가 세굴 현상이라서 그러는데 강바닥은 보면 자연현상으로 세굴현상이 수 천 개, 수만 개가 자연적으로, 크고 작은 소위 말 하면 웅덩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특히 보 건설로 인한 세굴현상은 빨리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걱정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세굴은 4대강사업과 관련)
제19대국회 제331회 제5차 국회본회의(2015년 02월 25일)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담합 혐의로 인해서 말이지요, 국내 100대 건설사 중에서 상위 60개 사가 공정위와 발주처로부터 담합과 관련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59개 사가 1조 23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기관들이 발주 기관으로부터는 약 60개 사가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들이 여러 가지 검찰에 기소되고 형사재판을 통해서 재판 중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계속 국민의 세금을 담합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대기업의 행태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그에 응징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의 이런 담합에 따른 제재가..... 해외 건설 시장에서 총 7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지난 1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예방을 위한중합방안을 마련하시고, 총리님 되시기 전에 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해당 국가에서 입찰을 받기 위해서 제한 없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국내 제재 규정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업오너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게 맞는데 기업의 국내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좀 완화해서, 정책적 제한을 좀 완화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참고로 2006년 참여 정부에서도 행정제재처분 해제 특별조치를 해서 기업에 대한사면을 단행한 바가 있거든요.				○ (담합 기업입찰 참가 제한 조치 완화 요구)
제19대국회 제32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 11월 06일)	함진규			"저는 완성 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제가 지난여름에 녹조 문제 때문 에 영산강을 한번 같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이 사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정치권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지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강 사업의 한70 ~ 80%가 완성됐다면 나머지 20 ~ 30%를 더 지류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말이지요,	○			
제19대국회 제3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 11월 04일)	함진규			"수자원공사가 저희 소관 위원회이기도 하지만, 뭐 4대강 건설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주셨지만 사실 채주누적 적자가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댐유지관리비까지 수공에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하고 홍수전용 댐 등 정부 소유 시설물 대행하는 그 관리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정부는 관련법에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 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승환 장관도 나와 계시지만 거기 15조1항을 보면 '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률 규정이에요. 그리고 36조 관련 법규 에 보면, (다목적댐관리 비용의 부담) 1항에 보면 말이지요. 제가 한번 조문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다목적댐의유지, 수리 또는 그 밖 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댐사용 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댐의 수탁관리 자가 여기에서 보면 수자원공사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댐수탁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말이지요. 수탁				○

				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 내에서만 댐 관리의 비용을 부담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에서 충당을 해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떠넘기는 이유가 뭘니까?				
제19대국회제337회 제8차 국회본회의 (2015년 10월 15일)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4대강은 물의 고속도로이며, 물이 없는 곳에 물을 공급하여 농작물 생산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었고 또 역사적인 소중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4대강 물을 가뭄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류 하천 사업과 도수로 사업이 연계 추진되어야 됩니다. 만약 한 달 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충남 서부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전국적으로 가뭄이 확산되지 않게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2015년도국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2015년10월8일)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물론 여기에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단기적인 것은 현지에 갔다 왔으니까 장관님이 잘 아시고—금강백제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보령댐으로 21km 도수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인허가가 열두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그냥 놔두면 허가 내는 데만 1년씩 걸리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정부 당국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 사업이 신속하게 내년2월이면 끝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큰일을 당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는데, 그동안에 4대강 사업을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을 많이 하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가뭄이 닥치고 보니까 지금 4대강에는..... 여기 지금 동아일보에 이렇게 죽 나고 국민일보, 한겨레 다나왔는데 4대강에는 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만 넘어가면 전부 가물어요. 그래서 지류하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용기를 가지시고, 여론 그런 것 걱정 하지 마시고요. 농촌,농민과 국민이 편하게 그리고 물의 효과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잠시 여론이 나빠도 결과가 좋으면 되거든요. 지류하천 사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왜 4대강에는 물이 넘치는데 독만 넘으면 논밭은 가물까, 지류하천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빨리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특별히 종합 마무리에 장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